11 제20272호

천연염색문화관장 이번엔 전문가 선임되나

전임 관장 수익 줄고 공모사업 실적 한건도 없어 초라한 운영 나주시 내달 4일 선임 앞두고 "전문성 갖춘 인물 뽑자" 여론

5개월째 공석인 나주천연염색문화관 상임이사(관장) 채용을 앞두고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 고 있다.

특히 염색분야 비전문가인 전 관장이 초 라한 운영실적으로 논란을 빚고 물러났다 는 점에서 신임 관장은 천연염색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선임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천연염색문화관 은 전남도의 승인절차와 정관 변경 등을 거쳐 현재 관장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나 주시는 다음 달 4일 면접을 통해 신임 관장 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나주시청 간부출신으로 염색분야 비전 문가였던 전임 이모 관장은 임기 3년동안 '천연염색전문가'인 전(前) 장모 관장 시절 보다 초라한 운영실적(광주일보 3월3일 자 11면〉을 내고 물러났다.

실제 나주천연염색문화관의 지난 2010 년부터 지난 2015년까지 6년간의 운영 실 태를 분석한 결과, 천연염색 전문가인 전 장모 관장이 재임했던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관람객은 19만2946명 에 이른다. 주요사업 실적은 23회 31억 8300여만원이며, 판매장 수익실적도 14억 748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전시 42회, 교 육 18회, 특허 15건 등의 성과를 냈다.

반면 나주시청 국장 출신인 이모 관장이 재임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적을 보 면 관람객은 18만9991명으로, 2955명이나

주요사업 실적도 22회 16억6530여만원 으로, 지난 2010~2012년 대비 15억1770 원이나 급감했다.

또 전시 33회, 교육 14회, 특허 7건 등 모 든 실적이 동반 하락했으며, 판매장 수익 금도 13억3160만원으로 1억원 이상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장 공모사업 유치실적도 뚜렷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전 장모 관장은 2010년부터 3년간 향토 산업육성사업 30억원, 농림바이오기술 산 업화연구사업 21억6500만원 등 51억6500 만원을 유치한 반면 나주시청 국장 출신 은 전 이모 관장은 재임시절 유치실적이

단 한건도 없다. 나주시는 천연염색문화재단의 비효율 적 운영에도 관장을 포함한 직원 9명의 인 건비로만 지난해 기준 3억1800여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관장의 연봉은 6300여만

나주시는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지 난 1월 27일 이사회를 열어 임기를 3년에 서 1년으로 단축하고 적극적인 운영활동 을 유도하기로 조치했다.

하지만 관장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전문 가 채용 요건 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

특히 현재 모집중인 관장 응시자격 요건 만 살펴봐도 자격여건을 완화시켜 6급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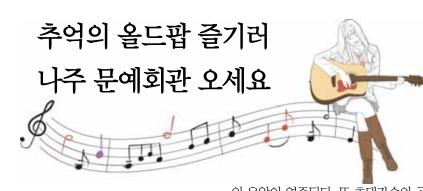
상 공무원으로 동종업무를 본 사람이면 응시를 할 수 있도록 해 낙하산 인사를 통 한 '관피아'를 채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또한 관장의 임기도 운영실적 에 따라 연임할 수 있도록 공고해 이사회 의 임기 단축안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염색분야 비전문 가인 나주시청 여성간부 출신인 A씨를 염 두에 둔 자격요건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윤영수 나주시관광문화과 장은 "나주시 국장출신이면 자격은 충분 하다"면서도 "특정인을 염두하고 응시요 건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나주시의 한 공무원은 "전임 나주시장 시절 전문가 채용 요건을 사실상 어기고, 공무원 퇴직자를 관장으로 채용해 실적 저 하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매 년 수억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시설인 만큼 전문성을 갖춘 관장이 임용돼야하 며, 실적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시스 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오늘·내일 3회 공연 무료

추억으로 떠나는 올드 팝 콘서트가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23~24일 이틀간 펼쳐질 이번 공연 은 나주시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공모사업에 선정돼 3200만원의 보조금 을 지워받았다.

나주 팝 경음악단 박래호씨의 지휘로 미국 수사액션드라마 '하와이 5-0수사 대'와 '영광의 탈출', '러브 스토리'를 비롯한 7080시대 노래 등 다양한 장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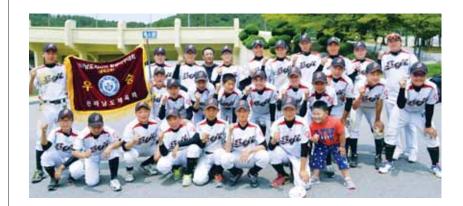
의 음악이 연주된다. 또 초대가수의 공 연으로 팝가수 예주씨와 통기타가수 주권기씨가 추억의 팝송을 노래한다.

공연 시간은 23일 오후 7시, 24일 오 후 2시, 7시 등 총 3회이며 관람료는 무 료다.

나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문화향 유 기회와 욕구 충족을 위해 오는 10월 에 평양예술단 초청공연을 비롯한 11 월에는 주현미 콘서트 등 우수초청 공 연을 총 5회 실시할 예정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세지중, 전라남도지사기 야구대회 우승



나주세지중학교가 제46회 전남도지사 기 학생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여수 진남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야구대회는 세지중을 비롯해 여수중, 순천이수중, 화순중, 진월중 등 5개 학교가 참가했 다. 세지중은 결승에서 여수중을 8-5로 누르고 우승했다. 〈사진〉

최우수 선수상에는 세지중 박건 선수 (2학년)가, 우수 투수상은 세지중 홍준

혁 선수(3학년)가, 미기상은 전희범 선 수(1학년)가 받았다.

박진석 세지중야구부 감독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세지중은 명실공히 전남 도 중학야구의 명문학교로 거듭나게 됐 다"면서 "야구부 선수들과 야구부 육 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강인규 나주 시장과 학부모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 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김천일 선생 제424주년 추모제향 거행



제424주년 문열공 김천일선생 추모제향 행사가 정열사에서 거행됐다.

나주시는 "지난 20일 나주시 대호동 정 열사에서 김천일선생 추모제향행사가 지 자체장 및 도·시의원을 비롯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배향문중대표, 향교유림등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고 22 일 밝혔다.

김천일선생의 추모제향은 매년 선생이 최초로 창의 기병했던 음력 5월 16일에 정 렬사에서 봉행한다.

제관은 초헌관에 강인규 나주시장, 아 헌관에 홍경석 남평향교 전교, 종헌관에 류민용 김천일대대장, 행적보고는 임경렬 나주문화원장이 했다.

문열공 김천일선생은 군기시주부를 첫 벼슬로 출사했고, 호남최초의 임란 의병장 으로서 북상 진군하여 많은 군공을 세웠으 며, 1593년 6월 29일 제2차 진주성 전투에 서 아들 상건과 함께 순절했다.

김천일 선생은 이같은 공을 인정받아 1607년 나주 정렬사와 진주 창열사에 사액 됐고, 1618년에 영의정에 추증됐다. 또 1627 년 문열의 시호가 내리고 1630년 충신정려 및 1745년에 부조묘의 은전이 내려졌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추모제향은 참 석범위를 넓혀 많은 시민들이 선생의 호국 정신과 애국심을 널리 알릴 기회가 됐다" 고 말했다.

한편 금성산 동편에 있는 정렬사에는 문 열공 김천일 선생을 비롯한 승지공 김상건 선생, 충민공 양산숙 선생, 관해 임회 선 생, 후조당 이용제 선생 등 5명의 위패를 모신 사당과 1626년에 세워진 정렬사비 (전라남도 기념물 제48호)와 유물관 등이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나주경찰,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개최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나주경찰(서장 김학남)은 지난 21일 나 주혁신도시 빛가람 초교 앞에서 나주시, 협력단체(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 노인 안전지킴이)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

이날 캠페인에서는 출근길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예방 홍보 리플릿을 배 포했으며, 초등학교 주변에서 등·하교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행에 대한 교통안 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도 펼쳤

김학남 나주경찰서장은 "어린이의 교통 사고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나주시, 대학생 직장체험 행정인턴 35명 모집

나주시는 "여름방학기간 동안 지역 대학생들에게 공공행정 분야 체험 기회 를 제공하고 학비 마련 부담을 덜어주 기 위해 대학생 행정인턴을 모집한다' 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행정인턴은 신청자의 전공과목, 자격증 보유, 거주지 등의 적 성에 따라서 부서에 배치하게 된다.

시는 행정인턴을 단순한 사무보조에 서 벗어나 현장 중심으로 다양한 행정 분야에 직접 참여시킬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 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참여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대학생 직 장체험 행정인턴 참여신청서와 재학증 명서 등 신청서류를 갖춰 나주시청 총 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 해 2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모집인원 은 35명으로 최종 선발 결과는 나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 현지 답사후 금액 협의결정